

소리 · 극 · 춤 · 인형극을 한무대에서 즐기세요



고창농악보존회 이명훈 회장



고창출신의 판소리 이론가 동리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버라이어티 감성농악이 올해도 우리 곁에 찾아왔다.

'도리화 귀경가세(연출 남기성)'는 지난 해 전라북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고창 대표작으로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5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질 '도리화 귀경가세'를 위해 제작진과 출연진은 불철주야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공연을 주관하고 이번 공연에서 제작총괄을 맡은 고창농악보존회의 이명훈 회장을 만나 '도리화 귀경가세'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다.

Q :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을 올리게 됐다. 소감은?

A : 지난해에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다시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지난해 공연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최고의 공연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 지난해 공연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A : 가장 큰 변화는 공연 무대가 고창읍성 옆 도예체험장에서 고창읍성 내아로 바뀐 것이다. 티켓 판매나 체험과 이벤트가 있는 토요일화요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고창읍성 밖에서 이뤄진다.

고창 공예들의 참여와 아이들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토요일화요일터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강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도 함께한다.

공예들의 참여 · 아이들 놀이마당 조성 볼거리 · 즐길거리 강화

티켓 구매시 먹·놀·자 제휴업체 '쿠폰북' 증정

출연진 더블 캐스팅으로 안정적 무대 꾸며

Q : 무대를 고창읍성 안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A : 도예체험장도 좋았지만 역사성과 전통성, 인문학적 이야기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고창읍성 내부 한옥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공연이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지난해 공연에 대한 호평과 기대에 힘입어 고창읍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달빛 아래 아름다운 한옥 '내아'를 배경으로 공연을 펼쳐게 되어 작품의 완성도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

Q : 내용적인 부분에선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A : 출연진을 A팀과 B팀 더블 캐스팅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공연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예술인의 고용창출 효과 등 공연의 질을 강화했다.

A팀, B팀간 판굿 구성에 차이가 있어 캐스팅에 따라 공연을 보는 재미와 매력이 다르다. 관객 입장에서 같은 공연을 두 번 봐도 질리지 않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Q :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먹·놀·자 프로젝트는 올해

도 계속되나?

A :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됐다. 공연 티켓을 구매하신 모든 분께 제휴업체의 할인쿠폰을 책으로 엮은 쿠폰북을 드린다. 고창의 대표 맛집과 숙박업체만 엄선했기 때문에 고창군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휴업체 14개소는 공연 티켓 현장 구매도 가능하여 관객들이 손쉽게 티켓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먹·놀·자(먹고,놀고,자고)' 프로젝트는 고창도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프로젝트다.

Q : 티켓은 일반티켓과 플러스티켓을 따로 판매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A : 일반티켓(1만원)은 공연 관람과 먹·놀·자 제휴 쿠폰북을 드리는 구성이고, 플러스티켓(1만5천원)은 일반티켓의 혜택에 고창읍성 산책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 새참까지 제공하도록 구성했다.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참여로 고창 문화관광자원에 담긴 자연과 사람, 역사, 작품의 주요 배경 및 인물에 대한 해설이 담긴 산책 프로그램과 공연을 연계하여 혜택은 2~3배가 많다.

플러스티켓은 공연 전일까지 인터넷 구매와 공연 당일 현장구매만 가능하다. 플러스티켓의 경우 매회 공연 시 20명으로 제한을 두니 서둘러 구매하시는 게 좋다.

Q : 새롭게 투입되는 배우진과 제작진은?

배우팀 중 다복 역에 구해민 씨와 신재효 역에 김호준 씨가 참여하고, 풍물팀에 김선미·전새론(장구), 김한섭(북), 여현수(징), 조민경(소고), 고안나(새남·나발) 씨가 새롭게 합류했다. 지난해에 이어 반주팀은 고창의 전통문화를 잇는 국악예술단 '고창'이 맡는다.

Q : 공연 관련 포인트는?

A : 작품의 장르는 '버라이어티 감성농악'이다. 농악을 중심으로 소리, 극, 춤, 인형극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 전통예술'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15명의 전통 연희자의 특별출연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한 금회복출 배관호 선생, 설관구 신만중 선생, 한량무 강동욱 선생 등 전통연희 명인들도 고창을 찾은 예정이다.

Q : 마지막으로 고창군민께 한마디 한다면?

A : '한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에서부터 시작했다. '도리화 귀경가세'도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커 나간다고 생각한다. 고창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이야기 소재와 고창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하여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소상공인들과 상생 협업을 내실로 더해 지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

나이가 고창군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